

서울, 역사의 현장을 찾아
연희104고지, 해병대초대교회와 해병대기념관

1950-2023

해병대1세대·미 해병대5연대
3일간의 전투 승리...수도탈환 교두보 확보
1982년 104고지 전사자 추모비 건립

용산구 자리한 초대교회·기념관
고귀한 희생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104고지에서는 한미 해병대와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지를 둘러싼 3일간의 교전이 해병대의 승리로 돌아가며 국군은 시내로 진격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우리 군은 교전 5일 뒤인 28일 마침내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 제73주년 서울수복기념일을 앞두고 연희고지를 비롯해 서울에 남아있는 해병대의 모습을 둘러본다.

글=이주형/사진=양동욱 기자



서울 후암동 시절의 해병대사령부 전경(1955.3). 가운데 해병대사령부 본관이, 그 위쪽으로 해병대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해병대사령부 제곱

▶ 연희104고지 전적비. 1982년에 건립됐다. 이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서울 시내로 돌진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9.28 서울수복으로 이어졌다.



연희 104고지 전적비

연희동을 가로지르는 성산로에는 ‘연희104고지 앞(구 성산회관)’이라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정류장의 명칭치고는 생소한 이름이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물어보고 싶어졌다. “혹시 연희104고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바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니 입에서 뱀뱀 뿐 차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용기 없음을 탓하며 정류장 대로변에서 이정표를 따라 주택가 골목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이내 나오는 계단 옆에는 빨간색 바탕 위에 ‘해병대 수도 서울 탈환 (연희)104고지 전적비’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인다. 이곳을 지나쳐 경사가 급하고 좁다란 계단을 오르면 작은 공터가 나온다. 바로 여기에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가 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 탈환에 나섰다. 북한군은 서울 사수의 최후 방어선으로 연희동 104고지 일대를 요새화해 강력히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훈련장이었던 까닭에 자연 요새가 형성돼 탈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적 25여단과 독립 7연대 소속 약 4000명의 최정예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 장교·준사관은 대부분 중공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우리 해병대 제1대대는 서울 도심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공격작전으로 서울 모래내 104고지를 점령하기로 했다. 해병대 제1대대가 중앙을, 미 해병대 5연대 1·3대대가 각각 좌우측을 맡아 서울 서측방 병진 공격을 감행했다. 결국 한국 해병대 1대대 3중대가 주공을 맡아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며 21일 오후 6시30분에 104고지를 완전히 점령했다.

대대는 22일 새벽 4시에 120mm 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돌격한 북한군 600여 명(추산)에게 역습을 받았지만, 3시간 동안의 혈투 끝에 이들을 격퇴하며 고지를 지켜냈다. 104고지를 둘러싼 3일간의 혈전은 1개 중대 중 26명만이 생존할 만큼 치열했다. 10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국군은 서울 시내로 돌진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해병대사령부는 1982년 9월 28일 104고지 탈환 중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적비를 건립했다. 전적비 하단에는 연희104고지 전투에 대한 간단한 약사(略史)가 기술돼 있으며, 후면과 측면에 진혼시(鎭魂詩)와 참전지휘관 명단이 새겨져 있다.

공터 한편에는 ‘해병대 수도 서울 탈환 작전’이라는 안내도를 마련해 전쟁 당시 해병대 작전과 주요 작전경로, 인천상륙작전과 경인지구작전, 그리고 관련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시는 이곳이 국가 보훈과 안보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보존하고 기념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2002년 11월 22일 현충시설,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각각 지정했다.

전적비는 6·25전쟁 관련 전적비치고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객들의 발걸음도 잦을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전적비들이 대부분 흰하게 노출된 곳이나 길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전우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전쟁 당시 해병대 작전과 주요 작전경로, 인천상륙작전과 경인지구작전, 그리고 관련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안내도.

가에 자리해 있어서 찾기 쉬운 데 비해 이곳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주택만 일부 보인 채 주위 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답답한 모양새다. 멀리 한강 쪽을 바라봐도 남산타워, 63빌딩, 국회의사당 쪽대기만 살짝 눈에 들어올 뿐이다.

하나 더 아쉬운 것은 전적비 설치 이전인 1958년 전적비 비문을 새겼다는 높이 1.5m의 자연석 바위이다. 현 전적비의 전신(前身)이자 원형이지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없다.

‘104고지 전적기념비’를 한자로 새겨 놓은 이 전적비는 원래 가파른 산비탈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104고지 일대가 개발되면서 전적비 바로 앞까지 주택들이 들어섰고, 주변은 철조망과 아카시아 나무로 꽉 들어찼다. 결국 전승(戰勝)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전적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982년 정삼에서 남서쪽 8부 능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현 전적비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옛 전적비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현 전적비 맞은편 아래로 내려가는 데크 아래 몸을 감추고 있다. 이 때문에 옛 전적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숲속에 숨은 바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생긴다.

연희104고지에서 바라보는 2023년 서울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70년 전 이곳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젊음도 있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번영의 오늘을 일구고 희망의 내일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고지를 내려가는 길, 숙연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묵숨 바쳐 지킨 그들을 기리며 다시 한번 조용히 감사함을 전했다.

해병대 관련 시설 2곳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는 해병대와 관련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해병대초대교회(이하 초대교회)와 해병대기념관이 그것.

먼저 초대교회는 해방촌 군인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래된 화강암과 담쟁이덩굴에서 은은히 퍼지는 단아한 기운, 자그마한 십자가와 소박한 나무계단, 벽돌로 쌓아 올린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교회는 1951년 경남 진해여고 강당에서 처음 창립됐다. 이후 해병대사령부와 전투부대와 함께 진해, 부산을 거쳐 1955년 서울 남산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1959년 잦은 이동에 따라 이전까지 지어졌던 쉼터(간이건물) 형식에서 영구건물로 이곳에 준공됐다. 해병대 공병감찰실이 설계한 교회는 사령부 부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1966년 12월 발행된 『해군군중사 제1집』은 초대교회 건물에 대해 ‘서울 장안의 반원(半圓)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세상에

빛을 속속들이 비추어야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1973년까지 사용되다가 이후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초대교회 건물이 창고와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동안 세상으로부터 잊혔던 초대교회는 2001년 다시 살아났다. 한국기독교해병선교회가 그해 10월 28일 만에 기념비를 세우고 복원에 나섰다. 이제 빛을 되찾고 현재 예배 장소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초대교회에는 반드시 봐야 할 뜻깊은 시설물이 있다. 전투에 나서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적과 맞서 싸웠던 ‘해병대 DNA’를 엿볼 수 있는, 바로 예배당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1951년 해병대 1연대가 북한군에 맞서 혈전 끝에 탈환한 강원도 양구군 도솔산에서 자란 고로쇠나무로 만들어졌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해병대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초대교회 관계자들이 도솔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만든 것이다.



해병대초대교회와 해병대기념관 전경.

1975년 4월 15일 개관한 해병대기념관은 1953년부터 해병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까지 사령부가 주둔했던, 정확히는 사령부 제2연병장이었던 장소에 세워졌다.

1000평의 대지 위에 200여 평의 2층 건물로 총포류·장비류·개인장구류·기계류·문헌 등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1층에는 역대사령관 기념물 전시실과 관리실이 있고, 2층에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과 해병대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

옥외 전시장에는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상륙장갑차(LVT-3C)와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에어보트를 비롯한 각종 기념물이 있다. 특히 해병대 7대 작전 기념비(통영상륙작전, 경인지구작전, 도솔산지구전투, 김일성·모택동고지전투, 장단(사천강)지구전투, 양도작전, 짜빈동작전)은 그간 해병대가 쌓아온 위업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감탄할 만하다.

똑같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지만 초대교회와 해병대기념관은 출입절차에 차이가 있다. 해병대기념관은 현재 국군복지단과 국방홍보원 등 관련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반면 초대교회는 영외에 있어 제한이 없다.

두 시설물을 따로따로가 아닌 한 번에 방문하는 법도 있다. 현재 초대교회와 해병대기념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8개 코스 중 하나인 녹사평 산책길에 포함돼 있다.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되는 녹사평 산책길은 길이 3.75km에 120분이 걸린다. 관람을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